

여의사들에 대한 남녀차별

김미경 / 한겨레신문 기자

지난해 겨울 전주로 '농촌의료 현실세 미나' 취재를 갔을 때 한의대졸업생을 만났다. 그녀는 전주예수병원에 두번씩이나 인턴시험을 쳤으나 낙방하고 세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병원쪽에서 여학생은 선출인원을 제한해 놓고 있어 성적은 합격한 다른 남학생보다 높은데도 계속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서울로 돌아와 인턴 시험에서도 남녀차별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다.

그 해 세번째 도전에서마저도 떨어졌던 그 여학생이 병원을 상대로 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소송이 받아들여져 최근 각 일간지에 보도된대로 병원쪽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검사는 기소장에서 '외과 등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레지던트과정에서 외과 인력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성인턴선발인원을 제한했다는 병원쪽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 여러보이던 여학생의 용기있는 행동이 결국 관행화되어 있던 인턴시험에서의 남녀차별에 경종을 울려준 셈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쫓 지켜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다.

전문직으로서 외견상 성차별이 전혀 없어보이는 의사직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석구석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한 점과 함께 그동안 전체 의료계뿐 아니라 여자의사들의 대응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등등의 생각들이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많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인턴을 뽑으면서 아예 '여학생들은' 특정과에 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면접점수를 형편없이 낮게줘 떨어뜨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사실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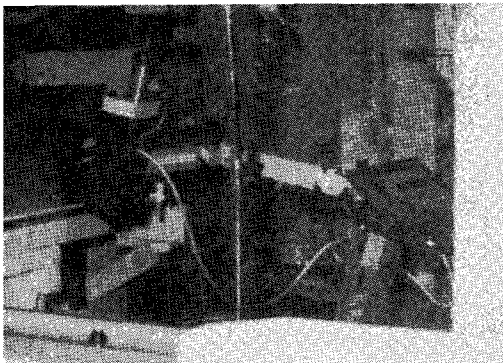


막상 인턴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위 인기과(?)에는 레지던트로 못 남고 방사선과 등 지원과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병원쪽의 변명은 여학생들이 체력이 안돼 힘든 과에는 배치하기 어렵고 여학생들 스스로도 기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체력이 떨어져 여학생들이 인턴·레지던트과정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병원쪽의 설명에는 여러가지 의료계내 문제가 복합적으로 함축돼 있다. 정말 인턴·레지던트들의 생활은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고달픈게 사실이다. 그의 24시간 근무로 야간, 주말 응급환자는 도말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히 권위적인 의료계내 관행상 지도교수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무리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수련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인턴·레지던트들에게 지워놓고 여자들은 힘들어서 못할 거라는 식의 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 전문직으로서 외견상 성차별이 전혀 업어모이는 의사직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석구석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

지난해 떠들썩하게 문제가 됐던 '응급환자 수술거부' 사건도 결국 레지던트만 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났다.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과 주말에 별로 임상 경험이 없는 인턴·레지던트들에게만 병원을 맡겨 두는 현 의료현실이 바뀌지 않고는 진짜로 여자의사에 대한 차별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여자의사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그동안 제대로 키워주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소아과, 정신과 등 몇개 과를 제외하고는 의학학술대회 등에서 뚜렷한 학술적 업적을 내놓는 여자의사들을 보기 힘들다.

이번 사건만 해도 여자의사들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도 '여자의사회'에서는 뚜렷한 입장표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각 의과대학마다 여학생들의 전체 학생수의 수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인력의 여성화는 필연적인 추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우스운 해프닝으로 여겨질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본다. 하지만 빨리 의료계가 권위적인 틀을 벗고 환자들도 여자의사에 대한 설명못할 불신감(?)을 벗어 버려야만 그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